

누구나 한번은 여행을 통해 얻은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다. 특히 민박을 통해 여행을 즐긴 사람이라면 그 추억은 더욱 생생할 것이다. 생면부지의 사람 집에서 문화와 관습이 다른 외국에서 그 나라 사람의 생활방식과 전혀 다른 식생활에서 우리는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을뿐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는 모든 국민의 자발적 협조로 친절과 질서에서도 금메달을 딴 바 있지만 각 가정에서 민박을 통해 한국인의 진정한 생활상과 미덕, 그리고 고유의 미풍양속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양계인 중에도 민박을 제공하여 민간외교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장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바로 김영환씨(본지 편집위원, 본회 이사)의 가정으로 선수촌이나 경기장 근접지에 위치해 민박제공이 훨씬 수월했다는 박민자 여사(49)를 만나 보았다.

□ 처음에 민박을 제공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우선 외국의 많은 올림픽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할 것같은 생각에서 민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이나 종합경기장이 가까운 강변역에 거주해 교통도 편리하다는 잇점과 올림픽 기간동안 양계산물의 소비도 증가되

올림픽에 뜨거운 가슴으로 참여한 양계인 가족 탐방

서울올림픽에서 민간외교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양계인 가족

인터뷰/함경숙 기자



리라 예상되어 양계업에 종사하는 한 가정으로서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 민박을 제공받은 대상자는 어느 나라의 누구였으며 머물렀던 기간은?

스페인의 고메즈 롤단 디르소와 마리아 이송송 아쿠에라 부부로

남편인 디르소의 직업은 엔지니어이고 그 부부의 막내아들(살바도르)이 이번 올림픽에 스페인 수구 대표선수로 출전했다고 자랑하더군요.

함께 생활한 기간은 9월10일부터 10월6일까지로 우리 고유명절인 한가위도 끼어 있어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일부분이나마 소개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 중에서 특별히 스페인사람을 소개받게 된 이유와 언어소통의 문제나 가족들에게 불편한 점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제25회 올림픽대회가 스페인에서 개최되기에 좀 더 그 나라를 알고 싶었고 저희집 막내인 윤호가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하고 있어 그동안 배운 외국어도 활용해 볼겸 국적을 스페인으로 선택했고 큰아들이 불어를, 그리고 제가 영어회화를 약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인인 마리아가 스페인어 외에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했기 때문에 의사 전달이나 언어소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 그러면 디르소 부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느낀 점과 한국에 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디르소 부부는 대체로 한국을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13년 전에 스페인의 자기집 앞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온가족이 한국인 사범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것이 한국과의 첫 인연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한국방문을 무척 망설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사회주의 성격을 띤 일부 신문에서는 연일 한국 내에서 데모와 테러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불안한 상황에 처한 국가라고 줄곧 보도되자 함께 오려던 많은 일행들이 오지 않았다는 말에 무척 놀랐습니다.

□ 그들 부부와 거의 한달 정도 함께 생활했는데 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디르소 부부는 모든 경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특히 수영은 한 게임도 거르지 않고 관람했으며 관심있어 하던 태권도는 미처 입장권을 구입하지 못해 주로 TV를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일정표를 고려, 가끔씩 짬을 내어 이태원, 남대문시장 등도 돌아보며 쇼핑을 했고 저희 가족들과 함께 민속촌, 속리산 등을 찾아 한국의 맛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스페인 수구 대표선수인 살바도르가 출전한 게임에는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석, 열띤 응원을 했던 덕분이죠 실력면에서 훨씬 강자였던 미국과의 경기에서 승리, 4위를 차지하자 디르소 부부는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더군요.

□ 우리나라는 옛부터 손님이 오면 가장 신경쓰는 것이 음

식인데 특별히 준비했던 요리나 우스웠던 일을 한가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에 비해 영양가를 상당히 고려하여 음식을 섭취하더군요.

특히 우리가 김치를 꼭 먹어야 하는 것처럼 계란후라이를 자주 섭취했고 아침은 서양식으로 스프, 빵, 육류, 과일 종류를 주로 제공했으며 저녁에는 필수 있는 우리의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한번은 디르소씨가 김치를 맛보더니 갑자기 라이타를 들고 불을 켜는 바람에 온가족이 화들짝 놀라며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황했는데 한참 후에야 매운 김치맛을 불처럼 뜨겁다(hot)는 뜻으로 표현했음을 알고는 한바탕 웃었던 적도 있습니다.

□ 이번 민박을 통해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바와 앞으로 디르소 부부와는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지?

그동안 짧으나마 정이 들었는데 그들 부부가 한국에는 형제가 생겼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더군요.

또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국민으로서 서울올림픽의 준비상황을 주의깊게 살펴보았으며 꼭 한번 초대, 은혜를 갚겠다고 덧붙이더군요.

내년 8월에 1차로 스페인에 초대하기로 하고 떠났는데 무척 섭섭했습니다. **양지**